

말 뿐인 광주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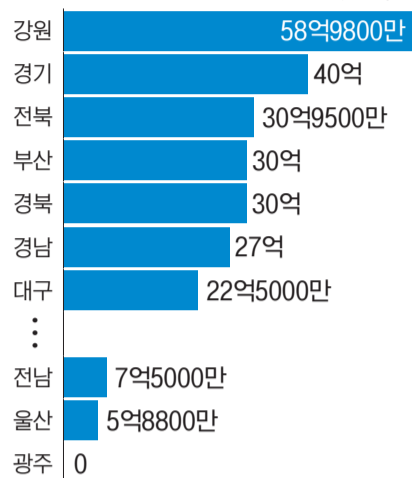
중기부 '청년몰 사업' 전국 지자체에 국비 4년간 337억 지원
광주시, 수요조사 조차 않는 안일 행정 ... 단 한 푼도 못 받아

'국비확보 0원' 전국 두 곳 뿐

광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육성 정책인 '청년몰'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4년간 국비 337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광주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광주 청년상인들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여수 갑)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국비 336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전통시장에 청년점포 20개 이상을 조성하고 고객편의시설, 공용 공간, 기반 시설, 임차료, 인테리어, 마케팅, 홍보 등 시장 한 곳 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있

다. 청년상인 1명에게는 2년 임차료 등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 부산 '국제시장', 강원 '원주중앙시장' 등 6월 현재 운영되는 청년몰은 총 349개이다. 지역별로 지원 내역을 보면 강원도가 58억98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0억원, 전북 30억9500만원, 부산과 경북 각각 30억원, 경남 27억원, 대구 22억5000만원 순으로 국비를 지원 받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국비 확보 0원'은 세종시와 광주시 두 곳 뿐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중앙시장이 지난 2017년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먼치레'를 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절반 가까이 폐업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여수중앙시장에는 29개 청년몰이 생긴 가운데 41%에 달

■ 청년몰 조성사업 국비 확보 내역
(2016~2019년8월, 단위:원)



하는 12개가 폐업해 17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모 첫해인 지난 2016년 서구 '양동수산물시장'과 동구 '남광주해뜨는시장'이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됐지만, 근저당 설정 등의 이유로 임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기존 상인과 합

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취소됐다. 30억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했다. 광주시는 첫째 실패를 거울 삼아 청년상인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후 청년몰에 대한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다른 지자체에 배정되는 국비를 바라만 봐야 했다 것이다. 남광주시장 발기자이자 시장 사업 경험이 있는 한 청년상인은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사장됐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왕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담당은 "광주-전남 지자체의 경우 청년몰 신청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담당 인력이 2명 뿐이라 청년점포 현황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청년상인이 활동할 인프라를 키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을 ... 두 바퀴의 사랑



11월 3일 영산강 일원 (전부 무료 참가비 무료)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시작해 서창교-승촌보-나주대교-영산대교-승촌보-서창대교-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구간에서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늦가을 영산강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일시: 2019년 11월 3일(일) 오전9시
장소: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
종목: 자전거대행진
참가비: 전 종목 무료
주최: 광주일보사, 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주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후원: 광주광역시
문의: 062-376-3112(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光州日報社

태풍 '미탁' 관동 전남 피해 속출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전남을 관통하고 나가면서 광주와 전남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미탁은 2일 밤 목포해안으로 상륙해 3일 새벽께 대구를 관통한 뒤, 오전 9시에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2일 예보했다. 미탁은 2일 오후 3시 기준 중간 강도의 소형급 태풍으로 중심기압은 98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27%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280km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린 2일 전남 목포시 석현동 임성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물이 들어찬 식당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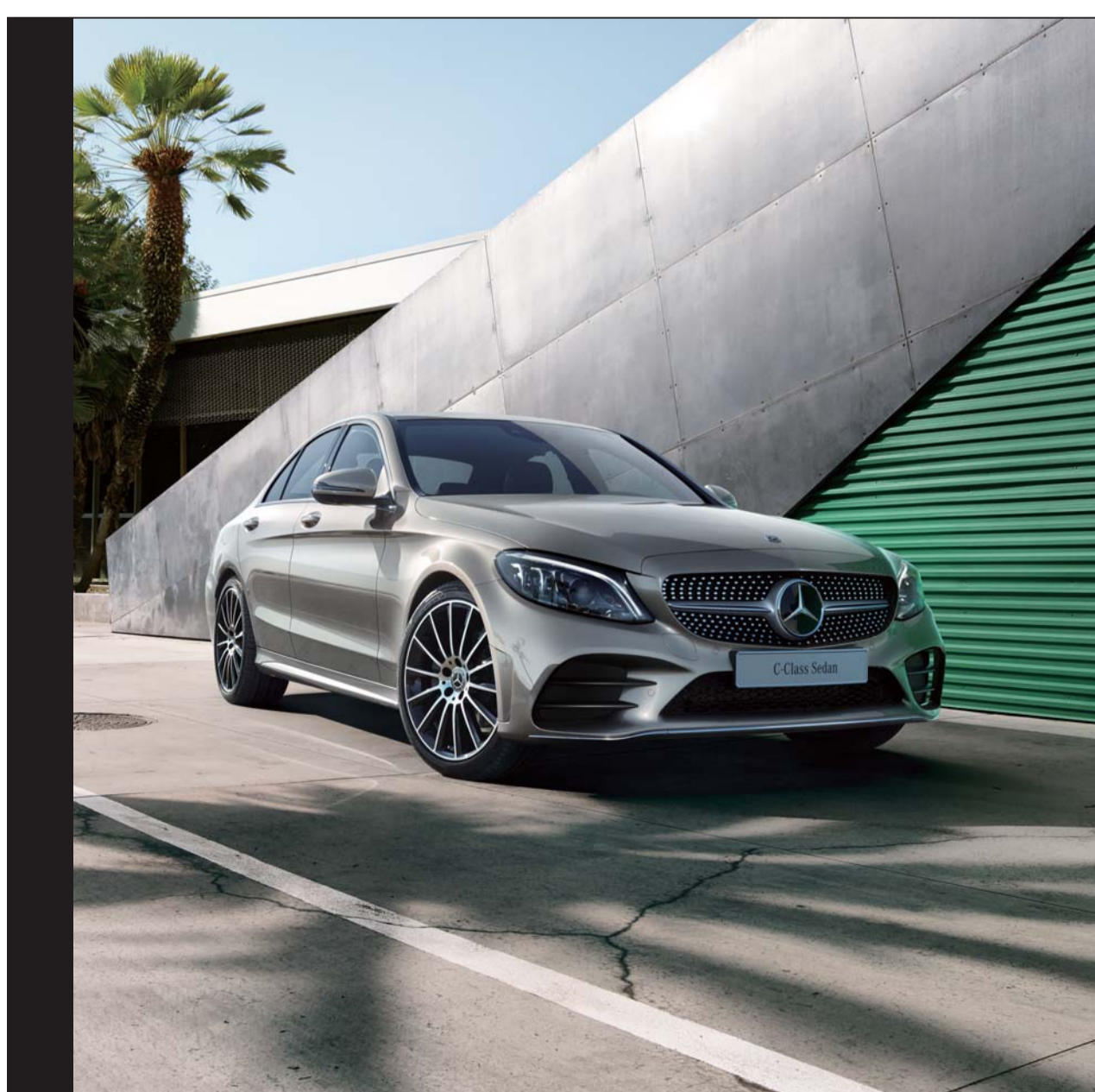
기상청 관계자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태풍 경로에 있거나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올 지리산 부근은 태풍의 중심부가 지나간 뒤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총선 코 앞에 두고 선거구 확정 되나 ▶3면
- 정찬주 다류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 광주FC 홈 4연승 ... 승격 눈앞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靑, 북 발사체 SLBM에 무게 ... 강한 우려 표명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를 국가안보실장의 주제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히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발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맞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북미대화가 진전 조짐을 보이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면 SLBM으로 판명 나더라도 당장의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l(도심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6.3km/l),
등급: 2등급, 복합CO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